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법에 관한 연구
- 2000년 인구센서스자료와 2005년 인구센서스자료 비교분석을 통하여 -

박 수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연구목적과 대상

1. 연구목적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대해서 위기감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추세로 인정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학문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우리의 정책적·학문적 관심은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노년기' 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 늘어만 가는 노인(단독)가구의 생계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데 모아져 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령자들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부양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생활비 충당방안을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예정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계수단 및 주 부양자는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처음 조사되었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주 부양자는 빠지고 대신 세는 나이 61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고령화시대에 고령자부담이 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따라서 표본조사가 아닌 센서스에서 고령자의 현재 생활비 부담에 관한 항목은 고령화시대의 고령자부양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0년 인구센서스와 2005년 인구센서스의 만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연구주제는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생활비 충당방안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성, 연령, 혼인지위, 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집단의 생활상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두 시기 고령자의 가족구성, 세대구성 등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를 파악하고, 고령자가 주 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다. 그 다음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특성과 가족구성 등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의 차원에서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안에 관한 문항은 2000년 인구센서스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주제는 2000년과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함께 분석해서 지난 5년 사이에 고령자의 현재 생활비 충당 방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인 수준의 특성상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의 자립 혹은 부양 문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행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Ⅱ. 기존 연구 검토

1. 고령화 추세와 고령자의 삶에 대한 선행 연구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65천명으로 총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29.4%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고령 인구는 남성이 39.8%, 여성이 60.2%로 고령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성의 증가율이 26.2%이었던 반면 남성의 증가율은 34.9%로 나타나 남성의 고령화 현상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표 1〉고령자(65세이상)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총인구	37,407	40,420	8.1	43,390	7.3	44,554	2.7	45,985	3.2	47.026	2.3
65세이상	1,446	1,750	21.0	2,262	29.3	2,640	16.7	3,372	27.7	4.365	29.4
남 자	539	652	20.9	811	24.3	975	20.2	1,287	32.1	1.736	34.9
여 자	907	1,097	21.0	1,452	32.3	1,666	14.7	2,084	25.2	2.629	26.2
구성비	3.9	4.3		5.2		5.9		7.3		9.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고령자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5년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분포는 65세-69세가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세-74세 28.7%, 75세-79세 17.6% 등의 순이었으며 80세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80세 이상 고령자의 분포는 15.2%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고령집단내의 연령별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8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0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476,965명으로 고령인구내 비율은 14.1%였다. 그러나 2005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665,547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고령인구내 비율도 15.2%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이 55.4%, 사별이 42.9%, 이혼과 미혼이 각각 1.1%, 0.5%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33.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이 37.0%, 중학교 10.9%, 고등학교 11.4%등의 순이며, 대학 이상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령남성의 경우 무학의 비중이 15.5%로 크게 감소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고령여성은 무학(45.3%)과 초등학교 졸업(38.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학력수준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세대구성별로는 2005년 현재 전체 고령인구 중 33.0%가 1세대 가구에 분포하고 있고, 다음으로 2세대 가구(24.9%)와 3세대 가구(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에만 해도 3세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떠올릴 때,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증대 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통계청, 2007). 이는 또한 전체 고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인구 집단 내에서 고령여성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시간이나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고, 노동에 배분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 경험이 적고,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 중 32.6%인 1,585,432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남성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령여성은 25.9%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남녀 모두 농업 및 임업(73.8%)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도매·소매업과 보건복지 공공개인서비스업 및 기타에 해당되었다. 종사상 지위로는 고령남성의 경우 자영자가 73.8%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령여성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74.0%로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통계청, 2007).

한편 노인들의 유급노동시간은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나 연령, 직종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수미·선보영·김진욱, 2005; 김진욱, 2006; 박수미, 200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5세-69세의 낮은 연령층이 38.4%, 70대가 27.9%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령과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노인의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직종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생활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정경희, 2001),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세 시간 이상 긴 유급노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경우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농현상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노인 시기는 신체가 약해지고 경제적 수입이 감소되는 등 단독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노인들에 대한 가사노동의 요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문숙재, 1996), 결혼 상태나 세대구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고령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이라 할지라도 청소 및 정리, 음식준비 등의 기본적인 가사활동은 노인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여성의 경우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박수미·선보영·김진욱, 2005).

고령의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시간이 유지되는 가사노동과 달리 노인들의 가족보살피기 관련 시간은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연령까지는 손자녀의 출산이나 아이돌보기, 집안 보살핌 등 가정의 주변역할을 분담하거나 육아 또는 가사돌보기의 경험자로서 기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동거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이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재생산을 위한 활력' 으로 여겨지는 일반성인의 여가와 달리 노인의 여가는 매일 매일의 생활 전체이며, 취미나 오락, 자기개발 등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다양하고 전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조경욱, 2005). 고령자의 여가유형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이가옥 외, 1995), 고령남성의 여가활동의 종류가 3.1개인 반면 고령여성은 2.4개로 고령여성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하는 여가활동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노인의 생활비 충당에 관한 연구 동향

노인의 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빈곤노인가구 실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김영숙, 2002; 최현수 류연규, 2003). 이들 연구에선 노인단독가구와 비노인가구간의 소득 격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단독가구가 빈곤가구일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노인가구의 소득이 건강, 만족도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백경숙 권용신, 200).

노인 가구의 소득원을 분석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효미(2007)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 혹은 가구주가 60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소득원천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소득에 있어서 노인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면 노인가구의 실질소득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 39.2%, 사회보험소득 27.6%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 혹은 1세대인 비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8.5%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평균소득액을 항목별로 볼 때, 근로소득이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였으며 연간 403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 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평균해 보면,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28.4%, 사회보험소득 9.7% 순이었다.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이전소득에 의존해 가구경제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전소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친척/친치보조금

이 6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효미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가구의 소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근로여부이지만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에는 여전히 자녀 혹은 친지에 의한 부양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수완·조유미(2006)는 노인계층의 소득구성 방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노인가구 유형의 특징과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구성 변화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구별 총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소득원별 빈곤제거효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및 사적이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둘째, 연령에 따라 근로소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70세 미만까지도 근로소득의 비중은 전체 소득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특히, 가구가 고소득, 고연령일수록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해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인단독가구에 비해 성인자녀동거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74%로 미루어 보아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당부분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들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비율은 높지 않으나 일단 수급하는 경우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급가구에서는 공적연금 급여가 없는 대신 사적연금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국에서 사적이전이 거의 없고 공적연금이 근로소득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과 차별적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노인가구 집단별 빈곤율과 소득원별 빈곤제거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거나 일하지 않을 경우,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을 경우, 노인단독가구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익기(1993)는 1990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였다. 직업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13.6%의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 이외의 소득원은 부동산 임대료, 자녀들로부터의 보조, 연금이나 공적부조 등이 있었다. 소득원의 수는 대체로 한 가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응답노인의 20%는 두 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소득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는 절대다수인 73.4%가 가족이 주는 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소득이 8.1%, 이자나 주식 등의 소득 7.3%, 부동산 소득 6.9%, 연금 2.2%, 공적부조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생활비 보조 사항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57.3$가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보조자를 살펴보면, 장남이 75.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며느리 11.2%, 차남이하 6.9%, 맏며느리 3.9%, 배우자 2.3%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비율은 높으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설사 취업한 경우라도 직업소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취업노인의 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인은 취업이외의 수단에 의해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소득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가족으로부터의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고령층의 생활비 충당방안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illiamson과 Smeeding(2004)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받는 사회보험금과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룩셈부르크 임금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5개 OECD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20년 동안의 합성 코호트를 추적하여 사적 임금과 사회보험금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노인의 대다수가 소득 중 대다수를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보험금 여부가 여성노인이 자신의 빈곤 정도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퇴직과 보험의 사회적 이전에 관대한 나라에 사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빈곤의 수준이 낮았다. 또한 이 경우에 주택은 특히 중요한 변수로서 나타났다. 노인 주택소유자들일수록 노인 임대주택 거주자들보다 빈곤할 확률이 낮았다.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주택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부양의 원천이 될 것이다.

Ⅲ.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의 변화

이 절에서는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집단의 생활상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두 시기 고령자의 가족구성, 세대구성 등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의 변화도 파악하고자 한다.

1.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2000년과 2005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본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변화 추세가 읍면부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동부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60.14%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55.28%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고령자가 분포해 있는 지역은 서울로서 서울에 전체 고령자의 16.88%가 거주하였다. 반면 2005년 서울 거주 고령자 비율은 전체의 14.73%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2005년 고령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고령자의 14.78%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령자의 지역 분포는 이후 고령자의 직종, 산업 분포와도 일관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3>은 고령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분포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까닭에 2000년이나 2005년 모두 여성고령자의 비율이 남성고령자의 비율보다 조금 높다. 그러나 그 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서 고령집단내의 남성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추세는 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가구의 증가와 연관되는 현상으로서 2000년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가 전체의 52.12%였던 데 비해 2005년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는 전체의 57.4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인부부가 가구주 부부를 이루는 비율은 2000년 74.25%에서 2005년 81.05%로 증가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3세대 가구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고령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령화의 정도가 더욱 진척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의 9.2%였던 데 비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10.88%로 증가했다. 고령집단내에 초고령집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또한 고령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70% 가량 되어 고령층이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고령자의

〈표 2〉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단위: 명(%)

		2000년	2005년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17538(16.88)	20540(14.73)
	부산광역시	7343(7.07)	8877(6.37)
	대구광역시	4649(4.48)	5544(3.98)
	인천광역시	4229(4.07)	5214(3.74)
	광주광역시	2346(2.26)	2975(2.13)
	대전광역시	2218(2.14)	2723(1.95)
	울산광역시	1290(1.24)	1591(1.14)
	경기도	15536(14.96)	20608(14.78)
	강원도	4680(4.51)	6411(4.60)
	충청북도	4348(4.19)	6192(4.44)
	충청남도	6381(6.14)	8852(6.35)
	전라북도	6602(6.36)	9790(7.02)
	전라남도	7884(7.59)	12492(8.96)
	경상북도	9473(9.12)	13991(10.04)
	경상남도	8063(7.76)	12046(8.64)
	제주도	1303(1.25)	1567(1.12)
동읍면부	동부	62472(60.14)	77068(55.28)
	읍면부	41411(39.86)	62345(44.72)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표 3〉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단위: 명(%)

		2000년		2005년
성별	남자	42491(40.90)		58059(41.65)
	여자	61392(59.10)		81354(58.35)
연령	60세이상-65세 미만	35854(34.51)		40249(28.87)
	65세이상-70세 미만	27986(26.94)		37694(27.04)
	70세이상-75세 미만	18438(17.75)		28737(20.61)
	75세이상-80세 미만	12053(11.60)		17559(12.59)
	80세이상-85세 미만	6148(5.92)		9968(7.15)
	85세이상	3404(3.28)		5206(3.73)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5179(53.12)		80131(57.48)
	가구주의 배우자	21946(21.13)		32858(23.57)
	자녀	60(0.06)		153(0.11)
	자녀의 배우자	89(0.09)		98(0.07)
	가구주의 부모	22826(21.97)	25648(24.69)	25011(17.94)
	배우자의 부모	2261(2.18)		
	조부모	561(0.54)		
	손자녀 및 그 배우자	8(0.01)	20(0.02)	0(0.0)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12(0.01)		
	형제자매, 그 배우자	154(0.15)		258(0.19)
	기타 친인척 (형제자매의자녀및그배우자)	8(0.01)	301(0.29)	349(0.25)
	기타 친인척 (부모의형제자매및그배우자+기타친인척)	293(0.28)		
	기타동거인	485(0.47)		555(0.40)
교육정도**	안 받았음	36973(35.61)		41977(30.11)
	초등학교	37585(36.19)		51802(37.16)
	중학교	10971(10.57)		17454(12.52)
	고등학교	11390(10.97)		17998(12.91)
	대학교(4년제 미만)	1622(1.56)		8957(6.42)
	대학교(4년제 이상)	4523(4.36)		
	대학원(석사과정)	534(0.51)		1225(0.88)
	대학원(박사과정)	244(0.23)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 2000년 가구주와의 관계 결측값=1, ** 2000년 교육정도 결측값=41

〈표 4〉 고령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단위: 명(%)

		2000년		2005년		합계
		남	여	남	여	
5세 단위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16662(46.47)	19192(53.53)	18788(46.68)	21461(53.32)	40249(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2050(43.06)	15936(56.94)	16822(44.63)	20872(55.37)	37694(100.0)
	70세이상-75세 미만	6881(37.32)	11557(62.68)	11768(40.95)	16969(59.05)	28737(100.0)
	75세이상-80세 미만	4158(34.50)	7895(65.50)	6188(35.24)	11371(64.76)	17559(100.0)
	80세이상-85세 미만	1954(31.78)	4194(68.22)	3155(31.65)	6813(68.35)	9968(100.0)
	85세이상	786(23.09)	2618(76.91)	1338(25.70)	3868(74.30)	5206(100.0)
10세 단위 나이	60세 이상-70세 미만	28712(44.97)	35128(55.03)	35610(45.69)	42333(54.31)	77943(100.0)
	70세 이상-80세 미만	11039(36.20)	19452(63.80)	17956(38.79)	28340(61.21)	46296(100.0)
	80세 이상	2740(28.69)	6812(71.31)	4493(29.61)	10681(70.39)	15174((100.0)
혼인 상태	미혼	139(35.01)	258(64.99)	256(38.44)	410(61.56)	666(100.0)
	배우자 있음	37708(59.57)	25597(40.43)	50971(58.25)	36529(41.75)	87500(100.0)
	사별	4196(10.74)	34867(89.26)	5755(11.72)	43360(88.28)	49115(100.0)
	이혼	431(39.94)	648(60.06)	1077(50.52)	1055(49.48)	2132(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7011(67.07)	18168(32.93)	52511(65.53)	27620(34.47)	80131(100.0)
	가구주의 배우자	388(1.77)	21558(98.23)	573(1.74)	32285(98.26)	32858(100.0)
	자녀	38(63.33)	22(36.67)	107(69.93)	46(30.07)	153(100.0)
	자녀의 배우자	7(7.87)	82(92.13)	18(18.37)	80(81.63)	98(100.0)
	가구주의 부모	4323(18.94)	18503(81.06)	4502(18.00)	20509(82.00)	25011(100.0)
	배우자의 부모	447(19.77)	1814(80.23)			
	조부모	1(12.50)	7(87.5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3(25.00)	9(75.00)	0(0.0)	0(0.0)	0(0.0)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44(7.84)	517(92.16)			
	형제자매, 그 배우자	54(35.06)	100(64.94)	108(41.86)	150(58.14)	258(0.19)
	기타 친인척 (형제자매의자녀및그배우자)	1(12.50)	7(87.50)	90(25.79)	259(74.21)	349(100.0)
	기타 친인척 (부모의형제자매및그배우자+기타친인척)	73(24.91)	220(75.09)			
	기타동거인	101(20.82)	384(79.18)	150(27.03)	405(72.97)	555(100.0)
교육 정도	안 받았음	7264(19.65)	29709(80.35)	8014(19.09)	33963(80.91)	41977(100.0)
	초등학교	14782(39.33)	22803(60.67)	19768(38.16)	32034(61.84)	51802(100.0)
	중학교	6588(60.05)	4383(39.95)	9918(56.82)	7536(43.18)	17454(100.0)
	고등학교	7935(69.67)	3455(30.33)	12135(67.42)	5863(32.58)	17998(100.0)
	대학교(4년제 미만)	1275(78.61)	347(21.39)	7129(79.59)	1828(20.41)	8957(100.0)
	대학교(4년제 이상)	3913(86.51)	610(13.49)			
	대학원(석사과정)	488(91.39)	46(8.61)	1095(89.39)	130(10.61)	1225(100.0)
	대학원(박사과정)	226(92.62)	18(7.38)			
합계		42491(40.90)	61392(59.10)	58059(41.65)	81354(58.35)	139413(100.0)

교육수준이 좀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고령자 가운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전체의 6.66%인 데 비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7.3%로 증가하였다.

고령자의 생활세계 역시 다른 생애주기집단과 마찬가지로 성별로 매우 다르다(박수미·선보영·김진욱, 2005). <표 4>는 고령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로 나눠본 것이다. 먼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연령계급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이지만 2000년에 비해 2005년 80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여성고령자의 비중이 조금 감소하였다.

고령집단의 혼인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별한 사람들의 90% 가량이 여성고령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고령층의 여성 가운데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까닭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고령자의 여성가구주 비율 역시 34%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집단의 성별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령집단 교육수준의 성별격차 역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령집단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고령자의 혼인지위, 교육수준 등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 집단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2. 고령자의 경제활동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것이 <표 5>이다. 2000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율이 32.48%에서 2005년에는 34.77%로 약간 증가했다. 2005년에 증가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주로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와 연관된다. 또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직업 및 산업 분포를 보면 <표 2>에서 살펴본 읍면부 거주 고령층의 증가와 일맥상통하게 농림어업직종, 농림어업 산업의 비중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서 숙박및음식점업과 운수업 등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것 역시 자영업자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2000년에서 5년이 경과한 2005년에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근소하나마 증가했지만 증가한 분야가 주로 농림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 형태로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에는 고령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1]. <표 6>을 보면 2000년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70,118명 중 8.52%인 5,977명이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실업자로 파악되었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5,977명 가운데에서도 20.53%에 달하는 1,227명이 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고령층 내부의 취업요구는 실제 취업률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은 2005년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장소를 표로 제시한 것으로서 고령취업자의 63.09%가 야외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등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 역시 고령취업자의 대부분이 농림어업, 운수업, 자영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는 것이다.

1) 2005년 인구센서스에도 고령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설문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5년 2% 인구센서스 자료에 이 설문항이 제공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했다.

〈표 5〉 조사대상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단위: 명(%)

		2000년	2005년
경제활동상태	취업(일하였음)	33402(32.17)	48470(34.77)
	취업(일시휴직)	320(0.31)	
	미취업	70118(67.53)	90930(65.23)
종사상지위	임금 근로자	6811(20.20)	8964(18.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8178(53.91)	27343(56.41)
	고용원을 둔 사업주	1361(4.04)	1633(3.37)
	무급 가족 종사자	7372(21.86)	10529(21.72)
직업	의회의원	1156(3.43)	1070(2.21)
	전문가	749(2.22)	1006(2.0)
	기술공	612(1.81)	1006(1.47)
	사무직	578(1.71)	951(1.96)
	서비스직	1159(3.44)	1620(3.34)
	판매직	2433(7.22)	2757(5.69)
	농림어업	21508(63.78)	32224(66.49)
	기능원	981(2.91)	1461(3.01)
	장치, 기계조작	973(2.89)	1461(3.4)
	단순노무	3571(10.59)	4978(10.27)
	분류불능(군인포함)	-	34(0.07)
산업	농업, 임업, 어업	21852(64.80)	32637(67.35)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1880(5.57)	2277(4.70)
	건설업	961(2.85)	1092(2.25)
	도매및소매업	2789(8.27)	3458(7.14)
	숙박및음식점업	1040(3.08)	1596(3.29)
	운수업	666(1.97)	1106(2.28)
	통신업	23(0.07)	59(0.12)
	금융및보험업	245(0.73)	242(0.50)
	부동산및임대업	1305(3.87)	1841(3.80)
	사업서비스업	742(2.20)	1163(2.40)
	공공행정	329(0.98)	459(0.95)
	교육서비스업	480(1.42)	663(1.3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44(0.72)	362(0.75)
	오락문화	192(0.57)	254(0.52)
	기타공공수리	792(2.35)	1060(2.19)
	분류불가능(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포함)	182(0.54)	193(0.40)
합계		33722(100.0)	48462(100.0)

〈표 6〉 조사대상의 구직활동 분포 (2000년)단위: 명(%)

구 분		빈도	비율
구직여부	찾아 보지 않았음	64141	91.48
	찾아 보았음	5977	8.52
합 계		70,118	100.0
일할 수 있었는지	일할 수 있었음	1227	20.53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할 수 없었음	4750	79.47
합 계		5,977	100.0

〈표 7〉 고령취업자의 근로장소 분포 (2005년) 단위: 명(%)

		2005년
근로장소	사업장(건물 및 땅)	12928(26.67)
	자기 집	2526(5.21)
	남의 집	486(1.0)
	거리	1221(2.52)
	야외 작업현장	30578(63.09)
	운송수단	587(1.21)
	기타	143(0.3)
합계		48469(100.0)

이번에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실태를 성별로 살펴보겠다. <표 8>을 보면,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2000년에 42.98%, 2005년에 44.21%로 근소하나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이고 그에 따라 취업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고령여성이 숫적으로 고령남성보다 많고 고령여성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가 경제적 필요와 연관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고령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여율 자체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나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형태나 직종, 산업 분포를 살펴보아도 고령여성들의 열악한 생활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령취업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집단의 95% 가량이 여성이며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령여성의 비율은 불과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인 고령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취업률도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바로 이 점에서 증가하는 고령집단의 인적자본량(human capital) 증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8〉 성별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단위: 명(%)

		2000년		2005년		합계
		남	여	남	여	
경제활동상태	취업(일하였음)	19157(57.35)	14245(42.65)	27040(55.79)	21430(44.21)	48470(100.0)
	취업(일시휴직)	192(60.0)	128(40.0)			
	미취업	23122(32.98)	46996(67.02)	31015(34.11)	59915(65.89)	90930(100.0)
종사상지위	임금 근로자	4742(69.92)	2069(30.38)	6191(69.07)	2773(30.93)	8964(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2904(70.99)	5274(29.01)	18964(69.36)	8379(30.64)	27343(100.0)
	고용원을 둔 사업주	1190(87.44)	171(12.56)	1399(85.67)	234(14.33)	1633(100.0)
	무급 가족 종사자	513(6.96)	6859(93.04)	485(4.61)	10044(95.39)	10529(100.0)
직업	의회의원	1091(94.38)	65(5.62)	989(92.43)	81(7.57)	1070(100.0)
	전문가	665(88.79)	84(11.21)	872(86.68)	134(13.32)	1006(100.0)
	기수공	539(88.07)	73(11.93)	619(86.69)	95(13.31)	714(100.0)
	사무직	477(82.53)	101(17.47)	770(80.97)	181(19.03)	951(100.0)
	서비스직	413(35.63)	746(64.37)	597(36.85)	1023(63.15)	1620(100.0)
	판매직	1290(53.02)	1143(46.98)	1428(51.80)	1329(48.20)	2757(100.0)
	농림어업	10973(51.02)	10535(48.98)	15951(49.50)	16273(50.50)	32224(100.0)
	기능원	704(71.76)	277(28.24)	1117(76.45)	344(2.55)	1461(100.0)
	장치, 기계조작	871(89.52)	102(10.48)	1498(91.01)	148(8.99)	1646(100.0)
	단순노무	2325(65.11)	1246(34.89)	3170(63.68)	1808(36.32)	4978(100.0)
	분류불능(군인포함)	-	-	23(67.65)	11(32.35)	34(100.0)

〈표 9〉 취업별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단위: 명(%)

		2000년			2005년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일하였음	일시적휴직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16074(44.83)	159(0.44)	19619(54.72)	18811(46.74)	21435(53.26)
	65세이상-70세 미만	10087(36.04)	83(0.3)	17815(63.66)	15332(40.68)	22359(59.32)
	70세이상-75세 미만	4573(24.81)	49(0.27)	13812(74.93)	9172(31.92)	19563(68.08)
	75세이상-80세 미만	1991(16.52)	15(0.12)	10045(83.35)	3711(21.14)	13847(78.86)
	80세이상-85세 미만	560(9.11)	12(0.2)	5575(90.69)	1172(11.76)	8795(88.24)
	85세이상	117(3.47)	2(0.06)	3252(96.47)	272(5.23)	4931(94.77)
교육정도	안 받았음	10220(27.64)	100(0.27)	26651(72.09)	12705(30.27)	29268(69.73)
	초등학교	13481(35.87)	130(0.35)	23973(63.79)	20519(39.61)	31280(60.39)
	중학교	3587(32.69)	42(0.38)	7343(66.93)	6050(34.66)	11403(65.34)
	고등학교	3663(32.16)	28(0.25)	7699(67.59)	5864(32.59)	12131(67.41)
	대학교(4년제 미만)	499(30.76)	6(0.01)	1117(68.87)	2731(30.50)	6224(69.50)
	대학교(4년제 이상)	1535(33.94)	11(0.01)	2977(65.82)		
	대학원(석사과정)	240(44.94)	2(0.37)	292(54.68)	601(49.06)	624(50.94)
	대학원(박사과정)	178(72.95)	1(0.41)	65(26.64)		
합계		33402(32.17)	320(0.31)	70118(67.53)	48470(41.65)	90930(58.35)

3.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

<표 10>은 고령자의 거주상태를 주택 점유형태, 주인가구 여부, 거처 종류별로 살펴본 것이다. 2000년에 비해 2005년 자가 소유 비율이 2.4%가량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월세 비율

도 0.2% 가량 높아져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고령집단내의 이질화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했다. 거처종류는 단독주택 비율이 67% 가량 되어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근소하나마 아파트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단독주택 거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향과 연관된다.

〈표 10〉 조사대상의 거주상태 분포 단위: 명(%)

		2000년		2005년
점유형태	자기 집	81374(78.35)		112516(80.71)
	전세(월세 없음)	12282(11.83)		12056(8.65)
	월세(보증금있는월세)	4977(4.79)	7378(7.1)	10560(7.57)
	월세(보증금없는월세)	1341(1.29)		
	월세(사글세)	1060(1.02)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2821(2.72)		4281(3.07)
주인가구	주인가구	81216(78.51)		112516(80.71)
	주인 아닌 가구(대표가구)	12886(12.46)		26897(19.29)
	주인 아닌 가구(기타 세 들어 사는가구)	9351(9.04)		
거처종류	단독주택	69934(67.32)		93285(66.91)
	아파트	22464(21.62)		33324(23.90)
	연립주택	4827(4.65)		10012(7.18)
	다세대주택	2331(2.24)		
	비거주용 건물(상가,등)내 주택	3897(3.75)		2184(1.57)
	기타(오피스텔)	11(0.01)	480(0.41)	608(0.44)
	기타(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21(0.02)		
	기타(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45(0.04)		
	기타(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 기타)	353(0.34)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에서 5년이 경과한 2005년 고령층의 가구유형과 세대구성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등 노인만으로 된 가구의 증가이다. 2000년 고령층의 가구유형 가운데 가족과 함께 사는 혈연가구는 전체의 85.25%에서 2005년 82.31%로 감소한 반면,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14.29%에서 17.26%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사는 혈연가구의 경우에도 노인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2000년엔 30.1%였던 것이 2005년에는 43.2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는 2000년에 전체의 44.85%였던 것이 2005년에는 60.5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서 고령층의 연령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령층 내부의 초고령집단의 증가에도 기인하며 남성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부부가구의 비중도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이라고 하겠다.

〈표 11〉 조사대상의 가구유형과 세대구성 분포 단위: 명(%)

		2000년	2005년
가구유형	혈연가구	88556(85.25)	114747(82.31)
	비혈연가구	484(0.46)	599(0.43)
	1인가구	14843(14.29)	24067(17.26)
세대구성*	1인가구	14843(14.29)	24067(17.34)
	부부	31270(30.1)	49664(35.78)
	부부+형제자매	26(0.03)	48(0.03)
	부부+기타 친인척	33(0.03)	194(0.14)
	가구주+형제자매	166(0.16)	40(0.03)
	가구주+기타 친인척	143(0.14)	220(0.16)
	1세대 기타	405(0.39)	558(0.40)
	부부+자녀	13814(13.3)	17186(12.38)
	부+자녀	732(0.7)	1008(0.73)
	모+자녀	4202(4.04)	5504(3.97)
	부부+양친	744(0.72)	888(0.64)
	부부+한부모	3527(3.4)	4936(3.56)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30(0.03)	21(0.02)
	조부모+손자녀	1563(1.5)	2216(1.60)
	2세대 기타	5187(4.99)	6873(4.95)
	부부+자녀+양친	5749(5.53)	4828(3.48)
	부부+자녀+한부모	12701(12.23)	11526(8.30)
	3세대 기타	7473(7.19)	8389(6.04)
	4세대 이상	786(0.76)	648(0.47)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 2005년 결측값=599(비혈연가구)

4. 고령자의 건강 상태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는 집안활동과 바깥활동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물어보았고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는 두 개의 범주로 구성된 활동제약 여부 문항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2>~<표 15>에 나타나 있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가운데 집안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61%이며 바깥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자의 활동상태는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고령자의 활동상태(2000년)단위: 명(%)

집안활동	혼자 할 수 있음	100088	96.39
	혼자 할 수 없음	3750	3.61
바깥활동	혼자 할 수 있음	98249	94.62
	혼자 할 수 없음	5589	5.38
합계		103883	100.0

2005년에는 좀 더 상세하게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감각기관, 학습능력, 육체적 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 모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72.45%였고, 걷기 등 육체적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3.64%였다. 두 번째 범주의 활동제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취업 활동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9.93%이며 쇼핑 등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4.71%였다. 이때 특기할 만한 것은 취업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95.11%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05년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34.77%에 불과했다. 결국 고령집단의 취업 요구는 매우 큰 반면 실제로 이들이 나가서 일할 만한 일자리가 태부족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활동제약 여부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 <표 14>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고령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활동상에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고령여성의 평균연령이 고령남성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취업별로 살펴본 활동제약 여부 역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활동상태가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3〉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2005년)단위: 명(%)

활동제약1	시각, 청각, 언어 장애	6874(4.93)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3788(2.72)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32951(23.64)
	없음	101003(72.45)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9229(6.62)
활동제약2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6330(4.54)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20511(14.71)
	취업활동(16세 이상)	6819(4.89)
	없음	111432(79.93)

〈표 14〉 성별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단위: 명(%)

		남	여	합계
활동제약 1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2852(41.49)	4022(58.51)	6874(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1295(34.19)	2493(65.81)	3788(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10816(32.82)	22135(67.18)	32951(100.0)
	없음	44880(44.43)	56123(55.57)	101003(100.0)
활동제약 2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3145(34.08)	6084(65.92)	9229(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2356(37.22)	3974(62.78)	6330(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6762(32.97)	13749(67.03)	20511(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2291(33.60)	4528(66.40)	6819(100.0)
	없음	48590(43.61)	62842(56.39)	111432(100.0)

〈표 15〉 취업별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 단위: 명(%)

		취업	미취업	합계
활동제약 1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1317(19.16)	5557(80.84)	6874(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397(10.48)	3391(89.52)	3788(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7170(21.76)	25780(78.24)	32951(100.0)
	없음	40137(39.74)	60864(60.26)	101003(100.0)
활동제약 2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1691(18.32)	7538(81.68)	9229(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530(8.37)	5800(91.63)	6330(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3351(16.34)	17160(83.66)	20511(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1059(15.53)	5760(84.47)	6819(100.0)
	없음	43194(38.76)	68235(61.24)	111432(100.0)

IV.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안

1.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안 분포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안에 대한 질문은 2000년 조사와 2005년 조사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생계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응답 항목으로는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2005년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이 무엇인지를 묻고 응답 항목으로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적금, ③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④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⑤ 부동산 ⑥ 함께 사는 자녀 ⑦ 따로 사는 자녀 ⑧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 ⑨ 기타(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등이 응답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05년 조사에서는 생활비 원천을 두 가지까지 중복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2000년 고령자의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의 43.72%였고 나머지 56.28%는 자녀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정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6〉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부양자(2000년) 단위: 명(%)

		빈도	비율
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45397	43.72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40681	39.18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17760	17.1
부양자종류	장남, 며느리	32490	55.59
	그 외의 아들, 며느리	13549	23.18
	딸, 사위	6317	10.81
	기타 친척	701	1.2
	정부 사회단체	4764	8.15
	기타	620	1.06
합계		103883	100.0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장남, 그 외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91%를 넘어서 고령자들이 대부분 가족관계내의 이전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응답건수 177,020개의 생활비 원천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생활비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9%였다. 그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 원천은 역시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서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18.08%,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24.55%로서 전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42.63%나 되어 고령자 집단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예금이나 적금,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 생활비의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5%에 불과했다. 2000년도 고령층의 생계수단 응답결과나 2005년 고령층의 생활비 원천 응답결과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은 고령집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이전소득과 같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표 19>는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을 내용별로 크게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한 것으로 4가지 범주는 ①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② 자산소득, 연금, ③ 자녀로부터 지원, ④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이다.

〈표 17〉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단위: 명(%)

		2005년
고령자 생활비 원천 (중복선택 가능)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52380(29.59)
	예금,적금	13132(7.42)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11552(6.53)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2817(1.59)
	부동산	7915(4.47)
	함께 사는 자녀	32000(18.08)
	따로 사는 자녀	43461(24.55)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10004(5.65)
	기타(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3759(2.12)
합계		177020(100.0)

〈표 18〉 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단위: 명(%)

		남	여	합계
고령자 생활비 원천 (중복선택 가능) 1순위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27733(36.71)	24647(24.29)	52380(29.59)
	예금,적금	6648(8.80)	6484(6.39)	13132(7.42)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6942(9.19)	4610(4.54)	11552(6.53)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1556(2.06)	1261(1.24)	2817(1.59)
	부동산	4033(5.34)	3882(3.83)	7915(4.47)
	함께 사는 자녀	8825(11.68)	23175(22.84)	32000(18.08)
	따로 사는 자녀	15097(19.99)	28364(27.95)	43461(24.55)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3329(4.41)	6675(6.58)	10004(5.65)
	기타(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1377(1.82)	2382(2.35)	3759(2.12)
합계		75540(100.0)	101480(100.0)	177020(100.0)

〈표 19〉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안 4범주(2005년)단위: 명(%)

		빈도	비율
생활비 충당방안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52380	30.23
	자산소득, 연금	35416	20.44
	자녀로부터 지원	75461	43.55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	10004	5.77
합계		173261	100.00

2.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

2000년 고령자의 생계수단을 개인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83.4%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수입만으로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75.34%가 자녀 등 다른 수입원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나 다른 단체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자 집단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인 60세~64세 연령계층에서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수입만으로 살고 있는 비율은 64.18%에 지나지 않았다.

혼인상태별로 생계수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사별한 고령자보다 이혼한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이혼자가 사별자보다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자녀 등 다른 수입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생계수단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고령남성 가운데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전체의 59.09%인 데 비해 여성은 동 비율이 33.08%에 불과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지표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자본, 고연령, 낮은 취업 비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고령여성의 생계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생계수단 여부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률적으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아서 경제적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고령자의 개인특성별 생활비 원천을 살펴보면(<표 21> 참조), 취업자의 경우 전체의 67.24%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 전체의 60.02%가 자녀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고령자의 취업 자체는 고령자 자신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볼 때 고령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들의 생활비 충당 방법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미취업자의 경우 저축이나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도 24.08%로 취업자의 경우보다 높지만 미취업자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도 8.02%로 높았다.

연령별로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의외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소득이나 연금소득 의존도도 높아서 고령집단내의 초고령집단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세인

〈표 20〉 개인적 특성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단위: 명(%)

	노인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경제활동상태	취업(일하였음)	27855(83.4)	5039(15.09)	507(1.52)	33401(100.0)
	취업(일시휴직)	248(77.81)	64(20.0)	7(2.19)	320(100.0)
	미취업	17293(24.66)	35578(50.74)	17246(24.6)	70117(100.0)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23010(64.18)	9761(27.23)	3081(8.59)	35852(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3471(48.14)	10454(37.36)	4060(14.51)	27985(100.0)
	70세이상-75세 미만	5802(31.48)	8688(47.14)	3942(21.39)	18432(100.0)
	75세이상-80세 미만	2326(19.3)	6330(52.53)	3395(28.17)	12051(100.0)
	80세이상-85세 미만	634(10.31)	3472(56.48)	2041(33.2)	6147(100.0)
	85세이상	154(4.57)	1976(58.62)	1241(36.81)	3371(100.0)
나이	60세이상-70세 미만	36481(57.15)	20215(31.67)	7141(11.19)	63837(100.0)
	70세이상-80세 미만	8128(26.66)	15018(49.27)	7337(24.07)	30483(100.0)
	80세 이상	788(8.28)	5448(57.24)	3282(34.48)	9518(100.0)
혼인상태	미혼	147(37.12)	66(16.67)	183(46.21)	396(100.0)
	배우자 있음	37834(59.77)	19126(30.22)	6338(10.01)	63298(100.0)
	사별	7012(17.95)	21120(54.07)	10930(27.98)	39062(100.0)
	이혼	403(37.35)	369(34.2)	307(28.45)	1079(100.0)
성별	남자	25095(59.09)	12757(30.04)	4617(10.87)	42469(100.0)
	여자	20302(33.08)	27924(45.5)	13143(21.42)	61369(100.0)
교육정도	안 받았음	10695(28.93)	17317(46.84)	8959(24.23)	36971(100.0)
	초등학교	17423(46.36)	14566(38.76)	5595(14.89)	37584(100.0)
	중학교	5741(52.33)	3821(34.83)	1409(12.84)	10971(100.0)
	고등학교	6664(58.52)	3485(30.6)	1239(10.88)	11388(100.0)
	대학교(4년제 미만)	1057(65.17)	416(25.65)	149(9.19)	1622(100.0)
	대학교(4년제 이상)	3164(69.95)	991(21.91)	368(8.14)	4523(100.0)
	대학원(석사과정)	436(81.65)	68(12.73)	30(5.62)	534(100.0)
	대학원(박사과정)	217(88.93)	17(6.97)	10(4.1)	244(100.0)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60대 초반집단의 높은 자산소득 비율은 고령사회가 우리의 예정된 미래인 만큼 서서히 노후를 준비해 온 이들 집단의 생애전략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혼인상태별로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2000년 고령자 생계수단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유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 의존비율이 높은 반면 이혼자, 사별자의 순으로 근로소득 의존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자녀 의존 비율이 높아진다. 성별로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근로소득 비율이 남성보다 낮지만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현격히 감소하였다.

〈표 21〉 개인적 특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단위: 명(%)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	합계
경제활동상태	취업(일하였음 + 일시휴직)	43869(67.24)	9404(14.41)	10627(16.29)	1341(2.06)	65241(100.0)
	미취업	8511(7.88)	26010(24.08)	64828(60.02)	8662(8.02)	108011(100.0)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21458(42.87)	12928(25.83)	14338(28.65)	1324(2.65)	50048(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6619(34.73)	11060(23.12)	18005(37.63)	2162(4.52)	47846(100.0)
	70세이상-75세 미만	9330(25.74)	6872(18.96)	17535(48.37)	2512(6.93)	36249(100.0)
	75세이상-80세 미만	3634(16.82)	3050(14.12)	12713(58.84)	2210(10.23)	21607(100.0)
	80세이상-85세 미만	1101(9.42)	1107(9.47)	7043(60.23)	1223(10.46)	11694(100.0)
	85세이상	238(4.09)	399(6.86)	4607(79.20)	573(9.85)	5817(100.0)
나이	60세이상-70세 미만	38077(38.9)	23988(24.5)	32343(33.04)	3486(3.56)	97894(100.0)
	70세이상-80세 미만	12964(22.41)	9922(17.15)	30248(52.28)	4722(8.16)	57856(100.0)
	80세 이상	1339(7.65)	1506(8.6)	12870(73.5)	1796(10.26)	17511(100.0)
혼인상태	미혼	149(28.01)	105(19.74)	10(1.88)	268(50.38)	532(100.0)
	배우자 있음	42608(37.99)	28135(25.09)	24473(21.82)	3981(3.55)	112157(100.0)
	사별	9027(15.48)	6773(11.62)	37251(63.88)	5260(9.02)	58311(100.0)
	이혼	596(26.36)	403(17.82)	767(33.92)	495(21.89)	2261(100.0)
성별	남자	27733(37.39)	19179(25.86)	23922(32.26)	3329(4.49)	74163(100.0)
	여자	24647(24.87)	16237(16.38)	51620(52.09)	6675(6.74)	99098(100.0)

3. 고령자의 가구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

고령자의 가구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2000년 고령자의 가구유형별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45.45%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반면, 노인단독가구는 33.6%만이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만을 놓고 볼 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고령층일수록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고령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속하여 유배우 상태에 있는 집단들, 즉 고령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경제적 자립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5년 가구특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아도 2000년 조사결과와 같은 패턴이 그대로 발견된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단독가구의 24.09%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한 데 비해 혈연가구의 동 비율은 31.45%이다. 자녀에 대한 의존비율 역시 노인단독가구가 혈연가구보다 높고 노인단독가구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비율도 높다. 즉 이를 통해서 노인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어서 여성가

구가 많을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집단임을 알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유배우 상태의 고령자 집단 즉 부부가 함께 사는 집단에서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2〉 가구유형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단위: 명(%)

	노인 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가구유형	혈연가구	40244(45.45)	34500(38.97)	13796(15.58)	88540(100.0)
	비혈연가구	158(42.13)	93(24.8)	124(33.07)	375(100.0)
	1인가구	4978(33.6)	6079(41.03)	3758(25.37)	14815(100.0)
	비혈연6인이상가구	17(15.74)	9(8.33)	82(75.93)	108(100.0)
세대구성	1인 가구	5153(33.68)	6181(40.4)	3964(25.91)	15298(100.0)
	부부	20580(65.82)	7849(25.1)	2838(9.08)	31267(100.0)
	부부+미혼형제자매	10(38.46)	12(46.15)	4(15.38)	26(100.0)
	가구주+미혼형제자매	21(63.64)	4(27.71)	8(24.24)	33(100.0)
	부부+기타친인척	95(57.23)	46(27.71)	25(15.06)	166(100.0)
	가구주+친인척	42(29.37)	58(40.56)	43(30.07)	143(100.0)
	1세대 기타	209(52.51)	114(28.64)	75(18.84)	398(100.0)
	부부+미혼자녀	9081(65.74)	3699(26.78)	1034(7.49)	13814(100.0)
	편부+미혼자녀	340(46.45)	297(40.57)	95(12.98)	732(100.0)
	편모+미혼자녀	1069(25.45)	2275(54.15)	857(20.4)	4201(100.0)
	부부+양친	225(30.24)	390(52.42)	129(17.34)	744(100.0)
	부부+편부모	1160(32.89)	1547(43.86)	820(23.25)	3527(100.0)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2(40.0)	14(46.67)	4(13.33)	30(100.0)
	부부+미혼손자녀	831(53.17)	536(34.29)	196(12.54)	1563(100.0)
	2세대 기타	1490(28.74)	2444(47.14)	1251(24.13)	5185(100.0)
	부부+미혼자녀+양친	1659(28.86)	3088(53.71)	1002(17.43)	5749(100.0)
	부부+미혼자녀+편부모	1238(9.75)	7754(61.05)	379(29.2)	12701(100.0)
	3세대 기타	1994(26.69)	3965(53.08)	1511(20.23)	7470(100.0)
	가구주를 포함한 혈연인	186(23.66)	405(51.53)	195(24.81)	786(100.0)
	기타	2(40.0)	3(60.0)	0(0.0)	5(100.0)
합계		45397(43.72)	40681(39.18)	17760(17.10)	103838(100.0)

〈표 23〉 가구유형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단위: 명(%)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	합계
가구 유형	세대유형가구	45228(31.45)	30845(21.45)	62001(43.12)	5716(3.98)	143790(100.0)
	비혈연가구	196(33.11)	99(16.72)	167(28.21)	130(21.96)	592(100.0)
	1인가구	6956(24.09)	4472(15.49)	13293(46.03)	4158(14.4)	28879(100.0)
세대 구성	1인가구	6956(24.09)	4472(15.49)	13293(46.03)	4158(14.4)	28879(100.0)
	부부	25987(40.39)	16737(26.02)	18856(29.31)	2753(4.28)	64333(100.0)
	부부+형제자매	15(30.0)	19(38.0)	10(20.0)	6(12.0)	50(100.0)
	부부+기타 친인척	73(31.74)	72(31.3)	71(30.87)	14(6.09)	230(100.0)
	가구주+형제자매	9(25.0)	8(22.22)	8(22.22)	11(30.56)	36(100.0)
	가구주+기타 친인척	40(18.1)	55(24.89)	71(32.13)	55(24.89)	221(100.0)
	1세대 기타	214(36.33)	145(24.62)	154(26.15)	76(12.9)	589(100.0)
	부부+자녀	8268(37.90)	5930(27.18)	7208(33.04)	408(1.87)	21814(100.0)
	부+자녀	337(27.65)	276(22.64)	535(43.89)	71(5.82)	1219(100.0)
	모+자녀	1186(17.68)	876(13.06)	4229(63.03)	419(6.24)	6710(100.0)
	부부+양친	294(26.06)	162(14.36)	650(57.62)	22(1.95)	1128(100.0)
	부부+한부모	1420(24.32)	788(13.49)	3500(59.93)	132(2.26)	5840(100.0)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6(42.86)	5(35.71)	2(14.29)	1(7.14)	14(100.0)
	조부모+손자녀	959(33.85)	626(22.1)	1008(35.58)	240(8.47)	2833(100.0)
	2세대 기타	1633(20.21)	1233(15.26)	4457(55.17)	756(9.36)	8079(100.0)
	부부+자녀+양친	1451(23.44)	1046(16.9)	3597(58.11)	96(1.55)	6190(100.0)
	부부+자녀+한부모	1145(8.43)	1276(9.4)	10943(80.61)	211(1.55)	13575(100.0)
	3세대 기타	2031(19.98)	1501(14.76)	6210(61.08)	425(4.18)	10167(100.0)
	4세대 이상	160(21.0)	90(11.81)	492(64.57)	20(2.62)	762(100.0)
합계		52184(30.22)	35317(20.45)	75294(43.61)	9874(5.72)	172669(100.0)

4.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별 생활비 충당 방안

이번에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비 충당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2000년의 경우 <표 24>를 보면, 집안활동과 바깥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각각 13.68%, 13.87%만이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자녀나 다른 단체에 의존하여 살아간다고 응답하였다.

2005년의 경우 감각기관, 학습능력, 육체적 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 모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34.43%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했다(<표

25> 참조).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나 정부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두 번째 범주의 활동제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취업 활동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33.03%가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소득 의존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특히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 의존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활동제약을 갖고 있는 고령층의 생활비 충당 방법은 거의 전적으로 자녀와 정부에 의존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4〉 활동상태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단위: 명(%)

	노인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집안활동	혼자 할 수 있음	44884(44.84)	38668(38.63)	16536(16.52)	100088(100.0)
	혼자 할 수 없음	513(13.68)	2013(53.68)	1224(32.64)	3750(100.0)
바깥활동	혼자 할 수 있음	44622(45.42)	37793(38.47)	15834(16.12)	98249(100.0)
	혼자 할 수 없음	775(13.87)	2888(51.67)	1926(34.36)	5589(100.0)

〈표 25〉 활동제약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단위: 명(%)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	합계
활동제약 1	시각, 청각, 언어 장애	1521 (17.8)	1123 (13.15)	4574 (53.54)	1158 (13.55)	8543 (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566 (12.35)	564 (12.31)	2704 (59.01)	641 (13.99)	4582 (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8333 (20.29)	6036 (14.69)	21262 (51.76)	4758 (11.58)	41078 (100.0)
	없음	42720 (33.43)	28402 (22.23)	50792 (39.75)	4461 (3.49)	127772 (100.0)
활동제약 2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1971 (17.27)	1468 (12.86)	6329 (55.44)	1431 (12.54)	11416 (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931 (12.13)	1058 (13.78)	4490 (58.49)	1043 (13.59)	7677 (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4321 (17.04)	3546 (13.98)	13812 (54.46)	3237 (12.76)	25360 (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1370 (16.27)	1159 (13.76)	4553 (54.07)	1190 (14.13)	8421 (100.0)
	없음	45980 (33.03)	30486 (21.9)	57054 (40.99)	5679 (4.08)	139199 (100.0)

V. 맺음말

지금까지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성, 연령, 혼인지위, 학력, 경제활동상태, 직

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집단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은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특성과 가족구성 등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의 차원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 사회 고령자의 생활상에서 두드러진 변화상은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등 노인만으로 된 가구의 증가이다. 노인단독가구이든 노인부부가구이든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는 2000년에 전체의 44.85%였던 것이 2005년에는 60.5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고령층 내부의 초고령집단의 증가에도 기인하며 남성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부부가구의 비중도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고령자의 2000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율이 32.48%에서 2005년에는 34.77%로 약간 증가했다. 2005년에 증가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주로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와 연관된다. 또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직업 및 산업 분포를 보면 2005년에 읍면부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하여 농림어업직종, 농림어업 산업의 비중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건수 177,020개의 생활비 원천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생활비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9%였다. 그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 원천은 역시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서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18.08%,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24.55%로서 전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42.63%나 되어 고령자 집단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예금이나 적금,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 생활비의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5%에 불과했다. 2000년도 고령층의 생계수단 응답결과나 2005년 고령층의 생활비 원천 응답결과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은 고령집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이전소득과 같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 고령층의 생활세계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으며 경제적 자립도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몇 가지 변화의 조짐들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온 흔적을 엿보게도 한다. 2000년 인구센서스조사와 2005년 인구센서스조사의 고령층 생활비 충당방안을 비교분석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인 고령집단의 삶의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수완·조유미(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사회복지연구, 29:5-37.

김영숙(2002). 도시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일반가계, 일반노인 가계 및 빈곤노인 가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13(3): 95-119.

김익기(1993). 서울시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김진욱(2006).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 -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권 제8호.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신정
박수미·선보영·김진욱(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수미(2007).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통권 제72권 1호: 5-30.
백경숙 권용신,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87-106.
이가옥 외(1995).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1호.
조경욱(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7권 봄호.
최현수 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최효미(2007).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 노동리뷰.
통계청(2004).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통계청.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6). 2006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Williamson, James M, and Timothy M. Smeeding(2004). Sliding into Poverty? Cross-National Patterns of Income Source Change and Income Decay in old Age. CRR working paper 2004-25.